

한솔, TMP 사업 Perstorp에 매각!

2003년 6월 스웨덴 합작사 HansolPerstorp 출범 ... 매각대금 100억원

한솔케미언스(대표 강석주) TMP 사업부문이 스웨덴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Perstorp에 매각됐다. TMP 사업부문은 분리 매각되면서 새로운 합작법인 HansolPerstorp이 출범하게 됐다.

매각에 포함된 자산은 TMP(Trimethylol Propane) 공장과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이 포함됐고 매각대금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2003년 가동되는 TMP 합작법인인 HansolPerstorp의 합작지분율은 Perstorp이 51%, 한솔케미언스가 49%를 보유하게 돼 경영권은 스웨덴의 Perstorp 그룹이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Perstorp 그룹은 HansolPerstorp을 아시아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고 향후에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솔케미언스는 매각이익 발생에 따른 손익개선 효과와 함께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 및 신규사업 투자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됐다.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은 TMP, Sodium Formate(제지 및 섬유첨가제), 기타 정밀화학제품으로 2003년 매출목표액은 1000만달러이다.

TMP는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용해성이 좋은 3가 알코올 물질로 Polyurethane 수지, Alkyd 수지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고 플라스틱 가소제, 계면활성제, 습윤제, 섬유가공제 등에 사용된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20>